

# 물가 상승에도...광주·전남 상장사 4곳 중 1곳 연봉 깎였다

## 광주·전남 상장사 15곳 연봉 현황

올해 3분기 광주·전남 물가 상승률은 6%를 넘기며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물가가 가장 크게 올랐지만, 지역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15곳의 평균 연봉은 4.8% 오르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5개사 가운데 4곳은 지난해보다 오히려 연봉이 줄었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 유가증권시장법인 15개사(금융업 제외)의 3분기 기준 1인 평균 급여액은 4212만6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4019만원)보다 4.8%(193만5000원) 인상했다.

이 같은 인상은 고용노동부 임금경정현황조사

## 3분기 물가 상승률 6% 넘어 'IMF 이후 최대' 평균 연봉 4.8% 상승...보해양조 34.3% 급감

에서 공시한 올해 9월 기준 전국 협약임금인상률 5.1%를 밑도는 수치다. 협약임금인상률은 실제 지급된 임금이 아니라 임금인상을 결정 때 지급하기로 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광주·전남 상장사들의 평균 연봉은 올랐지만 4곳 중 1곳꼴(26.7%)로는 1년 전보다 연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분기 기준 보해양조 1인당 평균 연봉은 2182만원으로, 1년 전(3322만원)보다 34.3%(-1140만원) 급감했다. 금호에이치티는 3538만원에서 3272만원으로 7.5%(-267만원) 줄었고, 부국

철강은 5.6%(-170만원) 감소한 2859만원으로 공시했다.

직원 수가 1년 사이 675명 증가(4696명→5371명)한 금호타이어 평균 연봉은 2.0%(-100만원) 줄어든 4800만원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가운데 DSR제강 30.3%(3639만원→4743만원), 다스코 29.3%(2547만원→3294만원), 조선내화 27.3%(3300만원→4200만원), 다이아믹디자인 12.0%(4636만원→5191만원) 등 4개사는 '두 자릿수' 인상을 기록했다.

이어 대우플러스 8.6%(3614만원→3926만원), 금호건설 7.0%(4297만원→4599만원), 대우에이텍 5.1%(4290만원→4507만원) 등도 15개사 평균 급여 인상을 웃돌았다.

지역 상장법인 15개사 가운데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한국전력공사 3분기 기준 평균 급여액은 6056만원으로, 1년 전보다 0.5%(33만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전력그룹사인 한전KPS 연봉 인상은 3.0%(4794만원→4937만원)로 나타났다.

이들 공기업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3분기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한전과 한전KPS 임직원은 1년 전보다 각각 188명·3명 늘었지만, 들여다 보면 기간제 근로자가 한전 110명·한전KPS 69명 줄었다.

15개사의 전체 임직원 수는 지난해 3분기 3만 8936명에서 올해 3분기 3만 9864명으로, 2.4%

(928명) 늘었다. 1년 전보다 직원 수가 줄어든 회사는 금호건설(-19명)과 다스코(-14명), 광주신세계-부국철강(각 5명), DSR제강-대우에이텍(각 2명) 등 6개사이다.

한편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광주지역 30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월급여액은 전년보다 3.3%(11만2000원) 오른 344만 8000원으로 조사됐다.

광주 월급여는 제주(328만4000원)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적다.

전남지역 30인 이상 사업체 평균 급여는 390만 5000원으로 전국 8번째를 차지했지만, 전국 평균(402만7000원)에는 못 미쳤다. 전남 인상은 2.6%로, 광주·전남 모두 전국 평균 인상률(3.6%)을 밑돌았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내년 경영환경 올해와 같거나 더 악화” 87.8%

## 중기중앙회, 중기 410곳 경영계획 조사

중소기업 대다수가 내년 경영환경이 올해와 비슷하거나 더 악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1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5-29일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 41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중소기업 경영 실태 및 2023년 경영계획 조사'에 따르면 내년 경영 환경에 대해 61.5%가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경영 환경이 악화할 것이라는 응답은 26.3%로, 87.8%는 내년 경영 환경이 올해와 비슷하거나 나빠질 것으로 봤다. 반면 개선될 것이라는 본 중소기업은 12.2% 수준에 불과했다.

내년 핵심 경영 전략(복수 응답)으로는 원가 절감 및 긴축(61.2%)이 가장 많이 꼽혔고, 이어 금융 리스크 관리 강화(34.9%), 신규 판로 확대(31.5%) 순이었다.

## “올해 어려웠다” 53.2%...수요 위축·금리 인상 등 원인 가장 필요한 정책은 '금융 비용 부담 완화' 68.8% 답해

내년 중소기업 경영 안정과 성장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복수 응답)으로는 금융 비용 부담 완화(68.8%)가 가장 많았다. 이밖에 판로 및 수출 지원 확대(33.2%), 규제개선(32.7%) 등을 꼽았다.

중장기적으로 중소기업 경영에 가장 불리해 대비가 필요한 요소(복수 응답) 1순위는 노동인구 감소(45.6%)로, 산업 변화에 뒤처진 규제(33.2%), 첨단 기술 수준과의 격차 확대(10.5%) 순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들은 올해 경영 환경에 대해서는 53.2%가 어려웠다고 평가했고, 그저 그러했다는 응답은 35.4%, 어렵지 않았다는 11.6%로 나타났다.

경영이 어려웠던 이유(복수 응답)로는 수요 위

축(57.3%)과 금리 인상(42.7%), 인건비 상승(28.4%)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많았다.

올해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취한 지구 노력(복수 응답)으로는 비용 절감 및 구조조정(59.8%)과 거래처(영업·홍보) 확대(51.5%)가 주로 꼽혔고 가장 유용했던 정부(지자체) 정책은 세금감면·납부유예(29.3%)와 대출 만기 유예·연장(22.2%), 소상공인 손실보전(16.1%) 등이 있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내년에도 복합경제 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해 저금리 대출 전환 등 부채 연착륙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기아 오토랜드 광주 노사, 김장나눔 봉사

기아 오토랜드 광주(공정장 박래석)는 지난 9일 '빛고을 사랑나눔 김장대잔치'에 노사가 함께 참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회공헌활동은 기아 오토랜드 광주는 연말을 맞아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의 겨울나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됐다.

행사 당일 광주김치타운에서 열린 김장봉사는 박래석 공장장과 김민기 기아 노동조합 광주지회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광주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김장김치를 담갔다.

이날 기아 오토랜드 광주는 총 5200만원의 김장비용을 후원했으며, 직접 담근 김장김치는 광

주지역 종합사회복지관 20개소에 전달돼 소외계층 가정으로 전달됐다.

기아 관계자는 “지역사회 이웃들의 겨울나기에 도움을 주고 따뜻한 정을 함께 나누고자 김장봉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과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민의 사랑에 보답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이 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아 오토랜드 광주는 지난 1일 '희망 2023 나눔 캠페인 출범 및 사랑의 온도담 제막식'에 참여해 1억7650만원을 후원하는 등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에 적극 나서고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



## 광주은행 SNS 구독자 늘어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가운데)은 최근 동구 대인동 본점에서 지난 9개월 동안 소셜미디어에서 활약한 직원 홍보단 '광은인싸 2기' 20명과 해단식을 열었다. 이들의 활동 기간 광주은행 공식 SNS 구독자 수는 전년보다 23% 늘었다.

<광주은행 제공>

# 한전 “안정적 전력 공급 위해 한전법 개정 꼭 필요”

“사채 발행 확대 안되면 전력구입대금 지급 불가...경제 전반 위기 우려”

## 로또복권

(제1045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6	14	15	19	21	41	37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1,990,060,443	13
2	5개숫자 + 보너스숫자일치					64,355,189	67
3	5개 숫자일치					1,597,554	2,699
4	4개 숫자일치					50,000	135,872
5	3개 숫자일치					5,000	2,280,432

한국전력이 재무위기를 극복해 전력 공급 차질을 막기 위해서는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대폭 늘리는 한전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전은 11일 발표한 '한전법 개정안, 국회 연내 제추진 관련 한전의 입장'에서 “한전이 필수 유동성을 확보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한전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이후 여야 합의로 임시국회에서 다시 개정안 의결을 재추진하기로 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한전의 대규모 적자 해소를 위해 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늘리는 내용의 한전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여야는 1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다시 발의해 연내 통과를 재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전은 “한전법 개정으로 사채 발행 한도가 확대되지 않으면 신규 사채 발행이 안 돼 전력구입대금 지급과 기존 차입금 상환이 불가능해진다”며 “대규모 전력 공급 차질과 전력시장 마비 등 국가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30조원이 넘는 영업적자로 인한 대규모 당기손실이 적립금에 반영되면 내년 3월 이후 신규 사채 발행이 불가능해진다고 한전 측은 설명했다.

업계는 한전이 내년에도 14조원 가량의 영업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전법이 부결돼 한전의 자금줄이 막히면 전기요금 대폭 인상이 불가피해질 가능성이 높다.

한전은 “정부와 단계적인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조기에 수립하는 한편 정부 재정 지원 방안과 전력 시장 제도 개선 방안 등 다각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강도 높은 재정 건전화 지구 노력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백희준 기자 bhj@

## 세열굴

# “광융합산업 발전 선도하겠다”

## 김동근 광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광융합 발전 전담기관으로써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고, 이를 통해 회원사의 이익도모와 국내 광융합산업 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지난 8일 제8대 한국광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에 취임한 김동근(60) 신임 부회장은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그는 세계적인 경기불황으로 광융합산업은 내년 어려운 한해가 전망되지만, 광관련 산학연이 함께 지혜를 모아 적극 대응해 새로운 기회를 마련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김 부회장은 “광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맞춤형 기업지원, 회원사 확대 및 자립기반 마련에 역



량을 집중하겠다”며 “소통하고 신뢰받는 광산업진흥회가 될 수 있도록 회원사의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전남대 금속공학과 학·석·박사를 졸업한 김 부회장은 광주광산업 1호기업

인 우리로광통신 연구소장을 지냈다. 또 광주테크노파크 전략산업기획단, 호남광역경제권 선도산업지원단 PD 및 단장, 초대 호남지역사업평가위원장과 광주지역사업평가단장을 역임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내년 소매시장 성장세 코로나 이전보다 떨어질 것”

## 상의, 2023 유통산업 전망 조사

대내외 불확실성 지속에 내년 소매시장 성장세가 코로나 대유행 이전보다 성장세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1일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 등 5개 소매유통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한 '2023 유통산업 전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내년 소매시장 성장을 전망치는 1.8%로 나왔다. 코로나19 기저효과가 반영된 2021년의 8.6%, 2022년 1~9월의 5.9% 대비 대폭 둔화한 수치다.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의 성장률 2.5%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전망치에 대해 상의는 “코로나19 기저

효과와 엔데믹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에도 고물가·고금리 등 소비시장에 부정적인 요인이 경기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년 소매 경기를 낙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내년 소비시장 전망(복수응답)은 44.7%가 긍정적으로, 55.3%가 부정적으로 본다고 답했다. 긍정적으로 내다본 응답자는 코로나19 종식(63.4%), 소비심리 회복(50.5%),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결(34.3%) 등을 예상 요인으로 꼽았다.

반면 부정적으로 본 응답자는 소비심리 위축(51.8%), 금리 인상(47.0%), 고물가(40.4%), 글로벌 경기침체(26.5%), 소득 불안(18.7%) 등을 이유로 들었다.

/연합뉴스